

서운영의 '집과 사람'



전원의 타운하우스, 도심의 빌라

최근에 타운하우스 붐이 일고 있다. 주로 도심에서 떨어진 전원에 지어지고 있는데 연립주택의 형태로 이루어진 2~3층 혹은 3~4층 규모의 주택으로, 거주자는 북쪽의 주택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도심 고층 아파트 일색의 주거문화에 염증을 느껴서 전원에 단독주택을 지어 살고 싶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막상 집을 지으려면 염두가 나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겨냥한 상품이라 할 수 있다.

타운하우스의 유래는 근세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럽 귀족들은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장대한 영지를 경영하며 거기서 올라오는 지대(地代)로 생활하게 되었다. 영국 귀족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농번기에는 자신의 영지에 살며 직접 농사를 감독하다가 추수가 모두 끝나 겨울이 되면 런던에 마련된 저택에서 지내곤 했다.

이때 자신의 영지에 마련된 주택을 컨트리하우스(장원주택)이라 하고 겨울을 나기 위해 런던에 지은 주택을 타운하우스(도심주택)라 한다. 이처럼 영국 귀족은 자신의 영지에 컨트리하우스를, 런던에는 타운하우스를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19세기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게 된다. 이들은 주로 공장을 소유한 자본

가나 은행가, 법률가, 의사, 학자 등 전통적인 토지 기반 귀족이 아닌 신지식이나 자본을 소유한 신흥중산층이었고, 그래서 컨트리하우스 대신 도심의 타운하우스에 거주하게 된다.

타운하우스는 점차 19세기 신흥중산층의 대표적인 주거로 자리잡게 되고, 이는 대서양 건너편의 신대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영국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미국도 타운하우스가 중산층의 주된 주거유형이 된 것이다. 이는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나 할리우드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집으로, 교외에 푸른 잔디밭을 배경으로 예쁘게 꾸며진 집들이 줄을 지어 늘어선 모습으로 나타난다.

타운하우스의 내부는 2~3층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1층에는 거실과 식당이 있고 2층과 3층에 침실이 있어, 주택을 공적 영역과 사적영역으로 명확히 나누는 영국식 주택의 특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이것이 2000년대 이후부터 한국에도 상륙하기 시작했다.

형태는 미국이나 영국식 타운하우스와 거의 흡사하며 주로 대도시 인근의 신도시나 전원에 지어지고 있다. 내부 구조도 미국과 영국식을 많이 따르고 있다. 현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실내는 모두 단일층

으로 구성된 아파트와 달리 타운하우스는 2층 혹은 3층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개 1층에는 식당과 거실, 2층과 3층에 침실로 채워진다.

그런데 이 타운하우스의 법적인 정확한 구분은 다세대 주택 혹은 연립주택에 속한다. 우리는 흔히 빌라, 타운하우스 이런 명칭을 쉽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주택 건설업자가 만들어낸 일종의 상품명이다.

모든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는데, 그 중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세분되고, 또한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세분된다. 그런데 단독주택과 아파트는 법적인 명칭 그대로 불리지만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은 본래 명칭 대신 '빌라'로 뭉뚱그려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본래 '빌라'는 르네상스시대 유행했던 귀족들의 시골별장을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도심에 지어지는 다가구,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빌라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물을 지칭할 때 그의 명확한 속성보다는 내 욕망이 투사된 형태로 부르는 경향이 있다. 방도 아닌 베란다도 책상 하나 책장 하나를 둔 공간이지만 부득불 그 곳을 서재라고 부르는 것은, 나 도 서재를 갖추고 싶다는 내 욕망을 그곳

에 투사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가구, 다세대, 연립 등을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부르는 것은 다세대나 연립주택에 사는 것이 그다지 내 세울 만한 일이 아니며 언젠가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으로 이사가고 싶다는 욕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아파트 위주로 진행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도 연관이 있다.

전쟁 후 지속적인 주택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공사를 건립하여 아파트 위주의 공급정책을 펼쳐 왔고, 이에 아파트를 지을 만한 공간이 되지 않는 도심 자투리 땅에 이른바 '집 장사'라고 불리는 개인주택업자들이 다세대, 연립 등의 소규모 주택을 지어 팔았다.

개인사업자가 급히 짓는 주택이다보니 더러 날림공사가 있어 부실주택의 대명사로 굳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를 감추기 위해 빌라, 혹은 타운하우스라는 낯선 이름을 차용해야 했다. 더구나 요즘 빌라는 주로 도심에 지어지고 타운하우스는 교외에 지어지고 있다.

본래 빌라가 르네상스 귀족들의 시골 별장이었고 타운하우스가 빅토리아 시대의 중산층 도심주택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하기 짝이 없다.

〈건축칼럼니스트〉

종교칼럼

명상치유 산사음악회, 선차의 향기를 듣는다



일선 정흥 보림사 주지

조선 후기 다성인 초의선사가 '보림백모'를 만들어 일약 다인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흥군에서는 청태전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단장, 이제는 세계 명차 대회에서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뒷산에는 순백의 차꽃 향기가 그윽하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순백의 색깔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참마음입니다. 서로 밍고 하나가 되면 그간의 쌓였던 우울과 스트레스는 스스로 물러갑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보배인 참마음은 차꽃처럼 순백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고결하고 청정합니다. 사람마다 이 바탕 위에 생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그린 그림을 마음대로 지우고 다시 그릴 수가 없지만 수행자들은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기에 시비양단에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여러 가지 색깔의 생각들을 일어나자마자 순간적으로 포착해 순백의 참마음으로 돌이키는 수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을 좇아서 시비를 일으키면 생각이란 불기운의 장애를 입어 열이 오르고 스트레스라는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면 바로 깨달아 순백의 참마음으로 돌이키면 흔적없이 사라지고 순간 몸과 마음은 쾌활해 집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서구에서는 우울과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필수도구로 명상을 하고 있으며 통합의학으로 발전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차꽃 향기를 코로 맡지 않고 귀로 듣는다면 일상사 그대로가 해탈 삼매를 이루고 일마다 결림이 없어 언제나 주인 공으로 당당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향기롭고 싶어서 몸 에 향수 뿌리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향을 쓴 종이에서만 향기가 나게 마련입니다. 세상의 많은 향기 가운데 으뜸인 것은 향기 없는 마음의 참마음입니다. 일체 꽃과 과일의 향기를 만나게 되면 향기를 따라서 좋다, 나쁘다는 양반의 시비를 일으

키지 말고 순간 포착을 하여 향기가 없지만 일체 향기가 나오는 무심을 깨달으면 영원히 향기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의 향기는 세상을 거슬러 오르기에 모든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대자비심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은 온통 소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에서부터 시작해 휴대전화 소리까지 소리의 공해 속에서 늘 긴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르르르 산사음악회를 통해서 일체의 소리를 산사의 고즈넉한 곳으로 데려와서 소리의 고향이 어디인 줄 돌이켜보면 가을 하늘처럼 맑고 밝은 우리의 참마음을 입을 깨닫게 됩니다.

울 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참고 이겨야만 살 수 있다고 해서 사바세 계라고 했습니다. 사바세계를 벗어나는 하나의 길은 일체 소리와 향기를 통해서 순백의 차꽃처럼 해맑은 참마음을 자각하는 길입니다.

기고

해외에서 돋보이는 광주 중소기업가들



임영일 광주시 일자리투자정책국장

광주의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이 러시아와 동유럽 시장에서 통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건축용 시스템 비계를 생산하는 ㈜정주산업통상은 전량 뉴질랜드에 수출하는 광주기업이다. 이 회사 대표로 광주시 무역사절단에 참가한 김영준 이사는 꼼꼼한 준비와 치밀한 전략으로 헝가리 수출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런데 김 이사와 만나기로 했던 바이어가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카탈로그만 봐서는 신뢰가 가지 않는 제품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김 이사는 낙담하지 않고 차분하게 준비해간 동영상과 홍보자료를 갖고 코트라 직원을 대동해 해당 기업을 찾아갔다.

이 같은 김 이사의 열정과 정성에 감동을 받은 바이어는 독일 제품보다 질적으로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의 매력에 푹 빠져 독일 제품 대신 광주 제품을 납품받기로 결정했다. 특히 수입에 필요한 자국의 인증절차까지 대신해 주고 내년 봄에는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고 한다. 바이어의 환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 이사는 유럽인의 최고 대접인 식사 초대까지 받았다. 광주에 무척 적극적인 기업가 정신이 유럽에서 통한

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준 사례다.

고급 인쇄용지를 공급하는 ㈜노보인터내셔널의 김주년 대표는 연간 매출액이 2억달러가 넘는 모스크바 소재 기업 BL-트레이딩사와 300만 달러의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모스크바시에 LED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맥주 판매처에 검과자를 독점 공급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알아내 김 대표가 발빠르게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

김 대표는 러시아 신문시장에도 새로운 활로를 개척했다. 국영인쇄소를 관장하는 러시아신문연합에 3년 동안 공을 들여 유럽에 빼앗겼던 종이 공급권을 되찾는데 성공했다. 가격 등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1000만달러 공급계약이 1개월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김 대표는 확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외에도 동유럽 지역 무역사절단에 참가했던 광주지역 10개 업체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수출 MOU 1649만달러, 수출 상담 2559만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중국의 저가 불량 공세에 밀려 고전하던 지역 중소기업들이 동유럽 시장 개척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모색한 것이다. 광주시는 11월 중에도 중남미 지역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지역 기업들에게 새로

운 수출시장 개척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지역 기업들이 수출에 나서길 주저하는 이유는 절차가 까다롭고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어렵게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제품을 해외에 납품하고, 납품액을 받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기다린다.

국내 업체는 물론 해외 기업들과 경쟁이 치열해 이익이 크지 않은 사례도 허다하다. 그렇더라도 시장의 규모가 크고 소비자가 무궁무진한 해외에 눈을 돌리는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

기업 스스로의 힘만으로 어렵다면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광주시만 하더라도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무역사절단 파견을 비롯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 물류비와 보험료 지원뿐 아니라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컨설팅 지원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역량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시작할 중남미 해외시장 개척에도 많은 지역 기업인들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社說

빛을 내 조성한 지방산단 잡초뿐이라니

기업 및 투자 유치에 통한 지역 발전을 내걸고 전남 도내 지자체들이 앞다퉈 산업단지를 조성했으나 결국 빛만 늘어날 위기에 처했다. 애써 만들어 놓은 용지는 분양이 안 되고, 금융기관에서 빌린 막대한 차입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조성이 끝났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모두 37곳으로, 이 가운데 개발 또는 미분양된 면적만 2200여만㎡에 이른다. 이는 연평균 수요면적 114만㎡의 19.6배에 달해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동남평 산단의 경우 함평군이 550억 원에 불과 조성했지만 현재 분양율은 15%에 불과, 매달 이자료만 1억9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목포시가 2902억 원을 차입해 조성 중인 목포 대양산단은 이자도 지금까지 180억 원을 지출했으며 2000억 원의 빚을 내 조성한 나주 혁신산단도 분양 수요가 없어 연간 80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쏟아붓고 있다.

지방 산단의 과포화현상은 지난 2000년대 초 산업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뒤 지자체들이 지역 발전을 이유로 비슷한 시기에 경쟁적으로 조성한 것이 화근이었다. 기업 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그 이면에는 단체장의 치적용에 따른 장밋빛 약속이 크게 작용을 했다.

산단만 조성해 놓고 들어올 기업이 없으면 지역적으로 큰 손실이자 그 피해는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전국에서 가장 재정이 열악한 도내 지자체들이 해마다 막대한 이자를 혈세로 물어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월배반이다.

정부가 2년 전 마구잡이식 지방산단 개발에 제동을 걸었지만 전남도 역시 신규 추진을 억제하고 일부 계획을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또한 해당 지자체와 공동으로 분양 수요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셈 문화장관회의 '문화수도' 광주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 교류 활성화를 꾀하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문화장관회의 제7차 회의가 2016년 한국에서 열린다. 국내 유치가 확정되면서 이제 관심은 어느 도시에서 열릴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제7차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된 것은 지난 19~21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제6차 아셈 문화장관회의에서였다. 지난 2003년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 열린 아셈 문화장관회의는 이후 2~3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예초 20개였던 회원국은 현재 50개 국으로 늘어났다.

이번 6차회의에 참석한 아시아·유럽 문화장관들은 '창조산업'을 주제로 각국의 정책 사례와 전망을 발표하고 협력 방안을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국제적인 문화 관련 어젠다와 교류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문화정상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2016년 회의 개최지와 관련 문체부

의 입장은 아직 특정 도시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살피겠다고 한다. 무엇보다 가장 기대감이 큰 곳은 광주다.

지역민들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추진 중인 만큼 국제적 문화 교류와 협력의 틀을 만들기 위해 개최지를 광주로 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내년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기념하는 아시아문화장관 회의에 이어 2016년 아셈 문화장관회의까지 이어지면 국제사업의 위상을 다지고 광주의 문화 저력을 유럽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재단은 이날 말까지 아시아예술극장, 문화창조원 등 4개 건물이 완공될 예정이지만 이를 채울 콘텐트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문화 관련 국제행사를 광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 권도 회의의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無等鼓

대학생이던 사촌 오빠 집 책장에는 책들이 빼곡했다. 그 중에서도 삼중당 문고는 작품 목록도 목록이지만 다양한 그림의 표지가 참 좋았다.

문고본에 얽힌 추억은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다. 300만 부 가까이 팔린 범우 에세이 문고의 범정 스님 작 '무소유'는 한 권쯤 갖고 있을 듯. 여학생들에게는 책 사이에 끼워두고 보던 하이틴 로맨스 토리와 맞춘 읽다보면 한 권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았던 자기 복제가 특징이었지만 새 책이 나올 때마다 돌려 읽느라 바빴다.

우리나라 문고본의 시초는 1909년 최남선이 10전 균일가로 발간한 심전총서로 알려져 있다. 해방 후에는 을유문고, 정음문고 등이 발간됐고 1970년대는 문고본의 황금기였다. 1972년 '그리스 로마신화'를 첫권으로 발간한 문예문고, 1975년 100권을 동시에 200원대에 내놓았던 삼중당문고 등이 대표적이다.

외국 문고본의 역사는 유구하다. "이제는 지식과 미를 특권계급의 독점에서 빼앗아 돌려주는 것이 언젠가 진정한 민중의 절실한 요구다." 일본 이와나미문고의 창간사다. 1927년 시

작된 이와나미문고는 5000종 넘게 발간되고 있다.

교세스문고는 1941년 창간된 프랑스의 문고본이다. 프랑스 사상이 풍테누가 남겼다고 전해지는 말, '교세스(Que sais-je- 나는 무엇을 아는가)'에서 따온 시리즈로 4000여 종 이상 발간됐다. 작가 토머스 만이 "레클람문고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독일인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독일 레클람 문고 역시 1867년 창간 후 여전히 진행형이다.

살림출판사가 펴낸 '살림지식총서'가 11년만에 국내 문고본 중 처음으로 500권을 돌파했다. 문사철을 비롯해 정치·사회·취미·실용·과학 등 온갖 주제를 다루는 시리즈로 가로 12cm, 세로 19cm 크기에 가격은 3300원(지난해부터 4800원으로 인상), 커피 한 잔 값이다.

문고본의 즐거움 중 하나는 책 날개에 적힌 제목을 보고 구입 목록을 체크하는 것. '포켓본스터'부터 '자크 라캉'까지, '축구의 문화사'부터 '포스트모더니즘의 성찰'까지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담긴 '작은 책'을 기억하시라.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문고본의 추억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